

파라과이 현실권력: 정치와 그 배경

토마스 팔라우 빌라데사우*

파라과이는 라틴아메리카에서 독특한 국가이다. 다른 이웃국가들보다 훨씬 더 농업중심적이고, 여전히 봉건주의의 잔재가 남아있으며, 특히 토지분배에서 매우 높은 불평등지수를 보이고 있다. 본 논문은 파라과이의 최근 역사와 경제 및 사회 구조의 특징, 강력한 과두제와 (특히 대두 생산과 같은) 몇몇 분야에의 집중을 분석한다. 그리고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페르난도 루고의 집권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항을 억압하고 범죄화하려는 경향의 배타적 정치를 분석한다.

핵심어: 경제, 정치, 역사, 페르난도 루고, 파라과이

“엑스포는 일하는 파라과이를 보여준다.” 축산, ‘공업,’ 무역 연례 엑스포에서 강력한 파라과이지방연합(ARP)의 구성원들이 얻은 성공에 대하여 보수일간지 《ABC Color》에서 한 부록판¹⁾에 붙인 표제이다. 이 표제는 ‘엑스포’에서 전하지 않은 사람, 즉 ARP(축산업자), 생산길드협회(UGP, 대두재배농),²⁾ 생산공업무역연맹(Fepinco, 거상 및 금융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은 일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달리 말해 임금노동자와 농민은 일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이다. ARP의 수장들은 매년 축산업이 ‘국가적인 문제’임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는데, UGP의 의장들 역시 대두가 ‘파라과이 국부의 주요 원천’임을 강조한다. 이것은 국민들이 누가 이 나라의 주인인지 잊지 않고, 그 주인의 이익이 ‘국가적인 문제’로서, 혹은 국가의 문제로서 보호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 Tomás Palau Viladesau, 사회학자, BASE 사회조사연구원, 대학교수, 사회분석가.

1) 지역부록판, *ABC Color*, Asunción, 28/7/2010.

2) 지방의 농공업 및 농산물수출업 경영길드들을 구성원으로 한다.

재검토를 위하여

역사에 대한 짧은 여담은 오늘날 파라과이의 현실권력에 대한 이해를 도울 것이다. (빠르건 늦건) 어떠한 방식으로든 20세기 초의 산업화 과정을 거친 후 수입대체산업화를 경험한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는 달리, 파라과이는 원자재수출에 종속된 모델에서, 비록 여전히 1차 산업에 한정되긴 하였지만, 다른 모델로 이동하였다. 파라과이에서는 이주민 유입으로 인한 도시화를 경험하지 않았고, 숫자적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노동계급이 정착되지 않았으며, 산업부르주아지 역시 형성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반봉건제적, 반자본주의적 생산 및 축적의 방식이 최근까지 유지되었다. (많은 이들이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3국동맹전쟁(*la Triple Alianza*)³⁾의 종전 무렵 파라과이는 온 나라가 파괴되었고 국민들은 사실상 몰살되었다. 토지는 외국인들에게, 특히 아르헨티나, 브라질, 영국의 개인 및 기업 또는 합작기업에게 팔렸다. 경제활동은 세 개의 축, 즉 목재 수출, 축산물 수출, 약용식물 수출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러한 모델의 토지기반이 대토지 소유였음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이는 상상을 초월하는 지방에서의 토지소유 집중현상이 140년 전부터 유지된 것임을 의미하는데, UN 국제식량농업기구(FAO)에서는 파라과이의 토지소유 집중현상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밝히고 있다.⁴⁾

주어지지 않은 변화들

이러한 생산구조는 1950년대 말에 변화를 겪었다. 과거의 자유주의적 과두제⁵⁾

3) 영국에 의해 시작되어 1865년부터 1870년 사이에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가 직접적으로 참여한 전쟁.

4) 2000년대 초에 발표된 지니계수는 0.91이었다(Banco Mundial (BM): Paraguay. *Impuesto inmobiliario: herramienta clave para la descentralización fiscal y el mejor uso de la tierra*, vol. I: Informe Principal, abril de 2007).

5) 콜로라도당이 친브라질적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전쟁 직후에 창당된 친아르헨티나적인 자유당(Partido Liberal)을 말한다.

와 콜로라도당 내부의 과두제 지지세력에 반대하는 알프레도 에스트로에스네르(Alfredo Stroessner)가 1954년에 대통령에 취임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이러한 옛 권력구조가 깨지기 시작하였다. 그는 일부 대농장(latifundios)을 징발하고 수용한 후 작게 나눠 소지주들에게 불하하였다.⁶⁾

에스트로에스네르는 그가 공부하였던 브라질군사학교에서 골드베리 두 코우투이 시우바(Goldbery do Couto e Silva) 등이 제창한 원칙을 채택하였다. 이 원칙의 가정들 중 하나가 비어있는 국토는 적국의 영토라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그는 게릴라의 근거지를 없애기 위해 브라질의 이주정책인 ‘서쪽으로의 행진’(la marcha hacia el Oeste)에 상응하는 ‘동쪽으로의 행진’(la marcha hacia el Este)을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 그는 브라질과의 국경지대로 국민들을 이주시키는 노력을 강하게 펼쳤다.

여기서 비(非) 백인 소농장 농부들을 통한 식민계획이 시작되는데, 이는 당시에 광범위한 목재농장 및 마테농장이 차지하고 있던 영토에 이주민을 정착시키는 한편, 이순시온 인접 지역의 두터운 소규모 생산자집단의 사회적 압력을 감소시키는 이중적인 목적이 있었다.⁷⁾ 그 결과로 대농장 토지기반이 사라졌다. 10년 후에는 주요경제활동이 목재 및 약용식물의 수출에서 처음에는 농업 및 면화로 그리고 나중에는 대두로 바뀌었다. 동부지역에서 50년 만에 일어난 일이 2~3년의 차이를 두고 식민프로그램을 통해 동부 지역의 북부에서도 일어난다.

그러나 이러한 농민이주계획이 토지소유의 탈집중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분배된’ 토지의 대부분이 농민들을 위해 20헥타르의 작은 부지로 분할되었지만, 일부는 ‘축산부지’라는 명목으로 2,000헥타르에 달하는 면적으로 나눠졌다. 이 축산부지는 에스트로에스네르와 친분이 있는 정치지도자 및 군부실력자들에게 양도되었다. 이들은 이후에 이 부지들을 분할하여 부동산업체나 외국의 구매자들에게 팔아서 투기잉여소득을 얻었다. 외국인 구매자의 경우 처음에는 브라질인들

6) 대부분의 토지를 불하받은 것은 (불과 7년 전인) 1947년 내전에서 콜로라도당의 승리를 도왔던 농민들인데, 이들은 이전의 과두제에 의해 소외되었던 이들에게 소농장을 싸게 넘기는 농업식민화프로그램을 요구하였다.

7) 간선도로의 양쪽에 각각 2km의 가로를 놓는 식민화 형태를 통해 정권의 추종자들에게 가로의 입구부지를 할당함으로써 식민지구 내의 사람들의 이동을 정치적으로 엄격하게 통제할 수 있었다.

이 60년대 중반부터 대규모로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다른 지역의 기존 축산대농장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

가난한 자들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분명한 것은, 이와 같은 반세기 동안 “농업개혁”이라 불리는 프로그램들을 통해 추구된 것이 70년대 중반부터 ‘농민’ 중심 농업과 대규모 기업형 농업의 정착을 위한 실제적인 처녀삼립지의 개간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농업은 다국적 농업수출기업과 자본화된 거대생산자조합을 중심으로 비밀리에 구축되어 갔는데, 이후에 이러한 기업과 조합은 결과적으로 형성 중인 모델로서 매우 실용적이었다. 알토 파라나 지역, 이타푸아 북부, 카닌데유 동부는 이미 90년대 초에 이 농업모델에 통합되어 있었고 거의 완벽하게 외국인들에게 통제되었다.

이 모델은, 비록 (처음에는 면화를 통해)⁸⁾ 상당 부분의 농민층을 시장에 통합시켰지만, 기본적으로 대두를 통해 고립지역의 특징을 유지하였으며⁹⁾ 통합된 기술발전을 거의 확산시키지 못하였다. 동시에 축산귀족층은 50, 60년대의 정치적 일면들을 빠르게 회복하였고, 80년대에는 더 많은 영토를 얻기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수출을 위한 비육축산,¹⁰⁾ 높은 수준의 유전학, 이식된 목초지 등과 같이) 어느 정도 집약적인 수단들을 가지고 있다.

8) 면화의 절정기는 1973년과 1982년 사이였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1973년 석유파동과 지역의 농업토양학적 특징에 적합한 유전학의 발전 덕분이었다.

9) Ramón Fogel y Marcial Riquelme, *Enclave sojero*, Centro de Estudios Rurales Interdisciplinarios, Asunción, 2007.

10) 이러한 육류의 상당 부분이 밀무역을 통해 근접한 브라질 시장을 목적으로 하였지만, 이러한 활동을 책임지고 있는 정치부문은 에스트로에스네르 시절에 자리를 잡고 여러 가지 유사기업적 명칭으로 다양화되었다. 몇 년 전까지 파라과이의 축산 화물량은 헥타르당 1마리, 1인당 1.7마리였다(Miguel García y Alejandra Prado, *Lasobrenia alimentaria en Paraguay*, AccióncontraelHambre, Asunción, 2006).

신봉건주의

대두경작지에 바탕을 둔 과거의 대농장 때문이든지, 오늘날의 축산 대농장 때문이든지, 파라과이는 삼국동맹전쟁 이후 특징적이었던 봉건제적이고 과두제적이며 보수주의적인 유산이 여전히 강하였다. 토지는 (주변의 다른 국가들에서보다 훨씬 더) 계속해서 사회적 신분과 부의 축적의 상징을 획득하고 결과적으로 정치권력의 행사를 위한 열쇠를 얻는 데 필요한 중개수단이다. 정치적 권리와 현실권력, 경제권력이 그 어느 때보다 대농장의 이익을 보호하는 페르난도 루고 정부 시절에 통일되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정치적 헤게모니와 부의 자본주의적 축적의 원천은 여전히 대농장의 이익이었다.

카르텔, 마약 그리고 현실권력

그러나 현재의 정치적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더 있다. 에스트로 에스네르의 권력과 부에 대한 욕구는 다른 독재자와 마찬가지로 거의 끝이 없어 보였다. 일단 권력이 공고해지자 그는 마약밀매업자들과의 결속을 넓히기 시작했는데, 우선 코카인 생산을 위한 필수품의 볼리비아, 페루, 콜롬비아로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고, 이후에는 파라과이에서 마리화나의 생산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였다. 또한 그러한 활동에서 유발되는 돈세탁을 용이하게 하였다. 그는 이러한 작업들을 그의 부관인 안드레스 로드리게스(Andrés Rodríguez) 장군에게 위임하였는데, 그는 당시 가장 큰 군사권력을 가진 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로드리게스는 돈세탁은 물론이고 마약의 유통과 생산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가졌었다.

70년대 초부터 이러한 공공연한 비밀이 외국에서 시작된 재판들에 의해 입증되었다. 로드리게스는 인턴폴의 체포영장 때문에 국외로 나갈 수 없었다. 미국무성이 에스트로에스네르 이후를 대비하여 그 상황을 정화하기로 결정한 것은 최근인 1989년이였다.¹¹⁾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마약밀매업자들은 파라과이에 정착

11) 미국대사관에서 변화를 강제하게 된 실제 동기는 당시에 논의가 진전된 상태에 있던 워싱턴 컨센서스의 기준에 따라 파라과이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려는 다국적

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부지역 북부의 상당 부분을 통제하는 가장 중요한 현실경제권력 중 하나가 되었다.

기업가답지 못한 기업가들

원래 가난한 농민과 상당 부분의 콜로라도당원으로 구성되었던 에스트로에스네르의 정치적 지지기반이 그의 첫 15년 간의 독재기간 동안 심각한 변화를 겪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당 내부의 내적 분쟁, 장관에게 무조건 충성하는 사람들만 남긴 군부의 ‘정화,’ 정부에 적대적인 노동조합과 학생조직에 대한 ‘습격’(razzias) 및 테러국가의 작동은 그의 정치적 지지기반을 다시 정의하도록 만들었다.

콜로라도당의 새로운 활동가와 민간지도자들은 토지, 직책, 경제활동부문의 분배와 관련된 증여를 통해 보상을 받았다. 부동산회사, 하청업체, 운송업체, 수출업체, 특히 식품 및 음료의 밀매, 비축, 국내판매, 소매업체가 가장 큰 혜택을 얻었다. 여기서 정권에 의해 기업가로 변신한 비폭력적인 정치적 범죄 집단인 ‘공용기업(empresarios)’이 나타난다.¹²⁾ 이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저명한 의원, 중요 기업 및 매스컴의 경영자 또는 소유주이다.¹³⁾ 이때부터 에스트로에스네르 정권과 이후 정부들을 특징짓는 부당이득행위(rentismo)가 강하게 나타난다.

현실권력에 대하여

그러한 방식으로 근본적으로 4개의 집단¹⁴⁾—축산과두제집단, 마약밀매업자,

기업들과 다자간 금융기구들이 직면한 난관들과 관련이 있었다. 이를 위해 압력을 받고 있던 에스트로에스네르 정부가 로드리게스 소유의 주요 플라자 환전소에 개입해야 했던 사건이 이용되었다.

- 12) 이들 중 상당수는 무시할 수 없는 범죄기록을 가지고 있다.
- 13) 아마도 이들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은 전직 대통령인 후안 카를로스 바스모시(Juan Carlos Wasmosy)일 것이다. 그는 이타이푸 댐의 건설에 대한 주요 계약들을 통해 기세 좋게 권력으로 나아갔다.
- 14) 중첩된 이익이 이러한 엘리트들을 다면적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많은 축산업자들이 마약과 목초지를 공유하고 있다. 다수의 ‘공용기업인들이 축산업과 이해관계가 있다.

거대기업, 다국적기업에 기반한 파라과이 현실권력의 구조가 형성되었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축산과두제집단이 가장 오래된 집단이다. 마약밀매업자와 거대기업은 에스트로에스네르 시절에 생겨났다. 다국적기업은 1989년 쿠데타 이후에 등장한 권력으로 현재 파라과이를 지배하고 있는 최소민주주의의 ‘수령’이 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에스트로에스네르에 대한 쿠데타 이후에 등장한 정부들은 이러한 네 개의 집단 중 일부의 직접적인 이익의 표현이었거나, 게임의 규칙을 존중하고 매우 분명한 한계를 지켜야 했다. 정당에게는 정책의제가 그러한 이익과 부합하도록 광범위한 노력이 요구되었다. 1999년 3월 라울 쿠바스 그라우(Raúl Cubas Grau)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하야는¹⁵⁾ 현실권력집단에 의해 부과된 정치행위규범의 엄격함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이다. 이러한 집단들은 당시에 쿠바스 그라우에 의해 보호를 받던 쿠바스 그라우의 선거캠페인 슬로건은 “당신의 한 표는 두 표의 가치가 있습니다.” 였는데, 이는 당시에 이전의 판결로 복역 중이던 오비에도에게 정치적 사면을 줄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리노 오비에도(Lino Oviedo) 장군이 다른 ‘후원자들’(padrinos)에게 할당된 경제적 부문을 차지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반대하였다.

이러한 ‘경솔함’으로 인해 오비에도는 범정부독죄로 두 차례에 걸쳐 잠시 동안 수감되기도 하였고, 공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으며, 이후 10년형을 선고받은 후 1999년에 망명길에 오르게 되었다. 공직에서 물러난 후에 오비에도는 자신의 정치운동단체를 만들었고¹⁶⁾ 이후에 정당으로 발전시켰다. 이는 콜로라도당 내부에서의 중요한 내적 단절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당원의 30%에 해당하는 이러한 내분은 2008년 선거에서 콜로라도당이 경험한 패배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 선거에서 콜로라도당은 에스트로에스네르 시절 이후 가장 낮은 득표율을 얻었다. (1999년에 쿠바스 그라우의 임기를 대신 하기 위해 임시로 취임한) 루이스 앙헬 곤살레스 막치(Luis Ángel González Macchi) 대통령의 뒤를 잇는 2003년

적지 않은 대두재배농 역시 부분적으로 축산업과 생산부품의 밀매에 종사하고 있다.

15) 이러한 정세 속에서 루이스 마리아 아르가냐(Luis María Argaña) 부통령의 암살, 거리폭동에서 6명의 청년의 죽음, 이후 리노 오비에도의 정치적 망명이 일어났다. 쿠바스 그라우는 고작 6개월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하였다.

16) 윤리적콜로라도당원전국동맹(Unace) 운동을 말한다.

선거에서 이미 콜로라도당의 자랑하던 역사적인 득표율 격차는 작아졌다.

곤살레스 막치의 임기는 부패의 심화로 특징지어졌는데, 이 시기에 부패는 (갑작스럽게 취임한 대통령의 명백한 지도력 부재에 의해) 우파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및 지역지구에 의해 비난을 받을 정도까지 만연했다. 국민들의 분위기는 이보다 최악의 사람은 나올 수 없다는 것이었다. 2003년 선거에 오비에도의 정당인 Unace에서 출마한 후보는 당수가 국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15%라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득표율을 얻었다. 이 수치는 오비에도 본인이 후보로 출마한 5년 후에는 24%로 증가하였다. 당시에 콜로라도당 후보 블랑카 오벨라르(Blanca Ovelar)의 득표율은 34%에 그쳤다. 자유당, 발칸화된 좌파, 무소속의 지지를 얻은 루고의 득표율이 40.8%에 이르렀다.

... 엇지른 우유 위에서

안드레스 로드리게스의 실각 후 15년 뒤, 쿠데타 후 거의 20년 뒤, 그리고 거의 중단 없이 국가기관의 통제해 온 지 60년 만의 콜로라도당의 패배는 오늘날까지 이 정치세력의 패대를 무너뜨리는 충격을 가져왔다.¹⁷⁾ (비록 부패에 대한 통제력 상실에 의해 피해를 입긴 하였지만)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없었고 공식적인 정치권력의 모든 심급들을 실제적으로 조종하였던 현실권력의 이익들이 (비록 성급한 판단이었음을 나중에 보긴 하겠지만) 해방신학원칙의 담지자로 여겨지고 못 가진 자들의 이익의 옹호자로서의 명성을 가지고 있는 전직 주교의 등장에 의해 갑작스럽게 위협을 받는 것으로 보였던 것은 당연한 일이다.

거인들의 분노

그러나 우파는 다각적인 전략으로 재빠르게 대응하였다. 게다가 모든 국가적 장치를 잃은 것이 아니었다. 입법권력의 양원이 계속해서 야당의 다수적 통제

17) 콜로라도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순시온 시장후보 경선에는 원래 24명의 후보가 출마하였다.

아래에 있었다. 루고를 직접적으로 지지한 정당들은 (더 적절한 용어가 없어 우리는 그것을 ‘루고주의’(luguismo)라 정의한다) 오직 전체 120석 중에 (자유주의자들을 세지 않으면) 다 합쳐 3개의 의석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의회의 장벽은 우파가 큰 부침 없이 최근 2년 동안의 정치과정을 거의 완전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로드리게스 재임기간 중이자 쿠데타 후인) 1992년에 승인된 헌법이 의회에 권력을 양도하였음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1967년에 채택된 이전 헌법에서는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다.¹⁸⁾ 의회의 빚장은 루고가 협정과 합의를 협상하도록 강제할 때 매우 효과적이었는데, 이러한 협정과 합의를 통해 루고가 상당수의 유권자와 정치조직으로부터 정통성을 잃게 만들었다.

한편, 사법권력 역시 (당시 콜로라도당의 방식에 따라, 그리고 현실권력의 ‘게임의 법칙’에 맞춰) 행정권력과 특히 조직화된 사회단체들의 주도권에 장벽을 세우는 데 한 몫을 했는데, 당시에 공개적으로 사법권력의 복원을 추진하려 하였다. 검찰청은 거의 항상 사회지도층을 귀찮게 하고 특권층이 규범을 위반할 때 다른 방향으로 시선을 돌리도록 하는 중요한 과제를 수행하였다. 이전의 내용을 고려할 때, 진정으로 해계모니적인 이익에 실제적인 위협을 주기 위하여 루고가 이용하였거나 이용하고 있는 권력 집행을 위한 수단의 폭이 좁아졌음을 감지할 수 있다.

국가기관 중에서 의회와 민간기관 중에서 언론은 루고의 대통령 취임 이후 거의 2년 동안 한 순간도 자신들의 활동을 보이콧하기를 멈춘 적이 없었다. 대통령이란 인물을 개인적으로 권위를 실추시키는 방법을 통해서든지, 법률의 입안을 체계적으로 봉쇄하는 방식으로든지, 정부는 방해받을 것으로 보였고 주요 선거공약들을 이행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공약들 중에는 농업개혁과 빈곤을 줄이기 위한 정책의 공식화에 관한 것들이 있었다.¹⁹⁾

18) 필자와의 대담에서 당시 제헌의회 위원 중 한 명은 파라과이의 국정에 제2의 에스트로 에스네르가 등장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의회 전체에 이러한 헌법조문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19) 예를 들어, 파라과이의 1인당 사회지출은 겨우 100달러에 불과하다. 반면에 아르헨티나는 1,500달러, 우루과이는 1,100달러, 브라질은 870달러, 칠레는 790달러에 이른다. 이러한 지표는 축적되고 있는 사회적 부채의 규모를 짐작하게 한다.

부패, 또는 국가의 이익

이 외에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또 다른 요소가 있다. 에스트로에스네르 이후, 부당이득행위를 직접적으로 계승하는 부패를 고려하지 않고는 파라과이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독재자가 제공한 정치적 보조금을 통해 성장한 유사기업인들이 이러한 환경에서 아무리 자신의 능력만으로 두드러진다고 할지라도, ‘이 나라에서는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축산가들을 사기꾼으로,²⁰⁾ 대부분의 기업가들을 탈세범으로,²¹⁾ 수출업자들을 환경, 보건, 노동 관련 규범의 지속적인 위반자들로 만들었다. 그리고 부당이득행위의 (작지만 직접적이고 양적으로 더욱 중요한) 수혜자인 공공관리기관이 결과적으로 파라과이에서 커미션, 뒷돈, 또는 ‘뇌물’(mordida)을 통하지 않고는 시간적으로든 형식적으로든 어떠한 절차로 진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러한 관행에 깊숙이 오염되어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부패가 그러한 정도까지 도달하여 최근 몇 년 간 고발된 사건이 매우 많다. 이 사건들은 검찰의 태만 또는 최고재판소의 묵인을 통해 전혀 처벌을 받고 있지 않다.²²⁾

부패는 파라과이 경제의 오직 절반만이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준다. 다른 절반은 음성적으로 작동한다. 체계적인 부패는 이러한 형식의 부의 축적에 실용적이다. 암시장 경제는, 비록 주로 비공식 일자리의 양산이란 방식으로 그 혜택이 나머지 경제에 미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통기업인들과 마약거래자들에 의해 (그리고 언급된 바와 같이 다수의 축산업자, 즉 마약거래 축산업자들에 의해) 운영된다. 따라서 만약 어떤 정부가 부패와의 전면전을 시작하기로 결정한다면, 실업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등록된’ 경제는 주로 대두, 빈민의 수출(외국으로부터 송금), 육류에 의지한다. 서비스 부문과 건설 부문의 기여는 훨씬 적게 나타난다. 공업은 단지 국내총생산(PIB)의 16%를 차지한다. 예상하는 바와 같이, 이 모델은 사반세기 전부터 그래 왔듯이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한 계속해서

20) 이는 자신의 사유지 내에서 재정혹자를 사유화하고, 환경규범을 회피하고, 다른 많은 현행법규들을 위반하면서 달성되었다.

21) 이들은 밀수상품을 반출입하거나, 분식회계를 하거나, 노동법규나 노동안전규범을 불이행하였다.

22) 심지어 당시 내각의 장관들 중 한 명이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범죄의 피고인이었다.

대량으로 빈민을 양산해 갈 것이다. 실업, 촌락으로부터 도시로의 이주, 도시의 치안불안, 심각한 교육, 건강, 주택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양키들 몰려오다

정치적 부패가 과도하고, 제도의 취약성이 심각하며, 사회적 변동성이 높고, 정치적 결정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이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은 남아메리카 코노 수르의 지리적 심장에 위치해 있고 자연자원이 풍부하다는 점과 함께 파라과이를 제국주의적인 지정학적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매력적인 표적으로 만든다. 이미 에스트로에스네르 시절부터 미군은 파라과이에 주둔해 왔다.

문제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파라과이의 다양한 지역 및 부문에 산재된 정보수집활동에 방점을 둔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 지역에서 미국에게 있어 주요한 지리전략적 위협인) 브라질과의 근접성, (미국대사관에 대하여 말할 때, 테러리스트 활동이 재원을 얻는) 삼국국경, (대량적재 항공기의 착륙이 가능한 옛 비행장을 근대화한 전략지역인 차코에서) 볼리비아로의 인접성,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본적 소비재의 공급 및 대두 수출과²³⁾ 관련이 있는) 다국적 거대기업들의 주재, (물, 생물학적 다양성, 에너지원 등의) 전략자원의 풍부, 이 모든 것이 파라과이를 미국의 이익이 걸린 중요한 표적으로 만들었다. 달리 말해서, 워싱턴은 남아메리카의 남부지역에 북부지역의 콜롬비아와 같은 중요한 주둔지를 필요로 한다. 즉, 이 지역을 지정학적으로 통제하고 어떠한 돌발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코노 수르의 콜롬비아를 요구하는 것이다.

‘테후 루과이’(teju ruguai) 정책²⁴⁾

이 전략은 사회적 저항을 범죄화하기 만들어졌다. 우파는 걸림돌이 없는 길을

23) 대두의 주요경작지는 알토 파라나, 이타푸아 노르테, 카닌데유, 산 페드로 주와 같이 삼국국경에 인접해 있다. 이곳들은 브라질의 주요 대두생산지역과 맞닿아있다.

24) 파라니어로 문자적으로는 ‘도마뱀의 꼬리’를 의미하는데, 채찍을 의미하는 대중적인 표현이다.

필요로 한다. 유전자조작 콩의 도입이 농민들을 가장 빠르게 등록된 땅으로부터 내쫓았었던 것처럼²⁵⁾ 현실권력을 집행하는 행위자들의 경제적-정치적 동력을 무디게 할 수 있는 반대의 목소리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상 농민조직과 그 지도자들에 대한 현재 (이미 루고 정부 아래에서) 파라과이 정부의 공격은 그들을 범죄자로, ‘부당하고’ ‘비난 받을 만한’ 행위로 법을 위반하는 사회행위자로 만드는 것을 지향하며, 결과적으로 그들을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민주화 이후 어떠한 콜로라도 정권에서도 농민에 대한 국가와 억압적인 국가기구들의 적의가 이렇게 강도 높은 폭력과 함께 전개된 적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²⁶⁾

변화에 대한 기대가 축적된 비(非) 콜로라도 정부 아래에서는 농민층에 대한 억압이 강조된다는 이 매우 모순적인 사건을 해석하는 데에는 시기적인 설명과 구조적인 특성의 설명이 존재한다.

더욱 정세적인 시대적 설명은 무엇보다 제도적인 억압 발판의 형성과 관련이 있다. 내무부, 사법권력, 검찰청, 입법권력은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확실하게 권위적이고 보수적이며 국가부르주아지와 초국가적 자본의 이익에, 그리고 간접적으로 외부권력을 대표하는 대사관들에 고분고분한 사람들에 의해 조종되고 통합된다. 정세적인 이유로 이것은 바뀌게 될 것이다.

바뀌기 어려운 것은 구조적인 조건들이다. 이러한 구조적인 조건들 중에서 오늘날 파라과이에 존재하는 ‘합법성’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는 140년 간의 과두제 지배 아래에서 만들어지고 개선되어 온 법들에 대한 것이다. 입법과정은 사회의 모든 부문을 대표했거나 대표하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정치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회의 특정부문의 특정 대변자들에 의해 때로는 참을성 있게, 때로는 폭력적으로 만들어졌다. 그 결과 법들은 강력한 과두제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²⁷⁾

25) 1992년과 2002년 인구조사 사이에 지방인구는 47%에서 43%로 감소하였고, 현재는 39%로 더 줄었을 것이다(*Censo Nacional de Población y Viviendas. 2003 y Proyecciones de la Población. Paraguay, DGEEC, Asunción.*)

26) 이후 대통령선거에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이미 자신의 의지를 밝힌 우파군부출신자가 내무부를 책임지고 있다.

27) “사실상, 완벽하게 가상의 법이 실제로 증상적인 법에 불과할 수 있다. 많은 경우 법은 악법이거나 법이 아니다. 그것은 성공적인 편견, 역사와 전통에 꼭 맞춰진

사법적—형벌적 공격의 이 첫 번째 형태는 (형식적 대의제 민주주의의 맥락에서) 넓게는 국민 전체와 좁게는 농민조직 및 그 지도부를 실제로 무기력하게 만들으로써 이후 수십 년 동안 축적되어 온 사회적 요구의 거대한 과중에서 기인하는 권리들을 청구한다. 이를 통해 제기된 요구들은 국가권력에 꼭 맞춰진 보수적 엘리트로 하여금 성년의 국민을 더욱 줄이는 새로운 법들을 만들고 승인하도록 추진하는 악의 순환고리의 자양분이 된다.

자본축적의 메커니즘으로서 대두와 축산의 중요성은 이미 언급하였다. 기본소비재의 공급과 대두의 수출은 다국적 기업들에 의해 철저히 통제되고 있다. 생산은 약 4,000개의 중간 규모 이상의 생산자에게 집중되어 있다.²⁸⁾ 그 중에 최소 80%가 외국계이다. 육류의 수출도 마찬가지로 다국적 브랜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6개의 냉동회사에 집중되어 있다.

이 두 항목은 이익을 유지하기 위하여 거대한 확장을 요구한다. 게다가 상상할 수 있듯이 노동력을 무시할 수 있다. 한 명의 노동자는 평균 약 150헥타르의 대두경작지를 관리할 수 있다. 그러나 축산대농장에서 노동자들이 차지하는 평균 치는 훨씬 낮다. 이것은 농촌지역에서 못뽑이로서 기능하는 땅에 대한 논쟁이며, 물론 원주민 지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논쟁은 불평등하다. 농업과 기업형 축산이 앞에 묘사된 바와 같이 입법과정을 이용하고, 무장경비, 테크놀로지, 농약살포비행기, 지역당국자를 ‘매수할 수 있는 자본, 여론의 향방을 조종할 수 있는 언론매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원주민 공동체와 농민의 정착지는 맨땅이다.

예상할 수 있듯이, 이러한 상황은 심각한 갈등의 무대를 구성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민주사회에서 거의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한 가난축적의 무대를 구성한다. 이때 루고의 통치활동에서 점증하는 통치불가능성의 달레마가 나타나는데, 이는 그의 심각한 정치적 취약성을 동반한다. 기본적인 사회적 필요의 충족 미달, 환멸, 무질서가 현재 무대의 핵심적인 특징들이다. 그러나 일부 부문에서 사회의 통일성과 질서는 권력행사의 중심적인 면을 구성한다. 따라서 질서에

관습, 강제로 어느날 만들어진 권력자들의 변덕이다.”(Carlos Fernández Liria, Pedro Fernández Liria y Luis Alegre Zahonero, *Educación para la ciudadanía. Democracia, capitalismo y Estado de Derecho*, Akal, Madrid, 2007)

28) 대두재배가구수는 33,000가구 남짓까지 상승한다.

대한 집착과 그 지속은 결과적으로 방어적인 태도로 나타난다.

이러한 방어적인 태도는 기업형 언론매체의 ‘도움’ 또는 경찰의 협조를 통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국민을 통제하고 농민권력과 그 사회적, 정치적 조직들의 회복능력을 결정적으로 제한하는 것과 같이 권력의 ‘비정상’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되는 해결책들에서 표현된다.²⁹⁾

사법권력, 검찰청, 경찰로 구성된 트리오는 이렇듯, 큰 낚시에서와 같이, 사회조직의 활동가들과 농민조직의 지도자들을 잡기 위하여 입법권력에서 양산된 억압적인 촌촌한 범망을 이용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가 된다. 루고 정부에서의 경우, 8명의 사회활동가가 암살되었고, 208명의 사람이 억압적인 상황에서 부상을 입었으며, 1,050명의 활동가가 체포되었고 333명이 기소되었으며, 쫓겨난 농민은 모두 합쳐 12,000명이 넘는다.

현실권력이 형식적으로는 그것을 보유한 기구들이 아닌 다른 쪽에 있음을 보여주는 이러한 증거는 반박의 여지가 없다. 초국가적 농업수출모델과 축산과두제는 손을 댈 수가 없다.

유지를 위한 양보

자신의 땅에서의 존엄한 삶에 대한 권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데에는 기업언론이라는 강력한 지원군이 존재한다. 페르난데스 리리아(Fernández Liria)는 이를 두고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공공의 공간을 장악하는데 필수불가결한 무기인 마스크는 오늘날 몇몇 거대기업의 손에 사로잡혀 있다. 이들이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보호하는 데 힘쓰고 있음은 분명하다. 실제로 ‘여론’이라고 불리는 것의 모든 수단을 독점할 수 있는 특정 재력가들이 존재한다.”³⁰⁾

29) 자신을 겸손하게 ‘언론안’이라 밝히는 아돌포 코로나토(Adolfo Coronato)는 브라질에서 출판된 『엘리트군단(Tropa de elite)』의 저자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좌파의 정치적 의지의 부족과 우파의 ‘제도적’ 현상유지의 고수는 마침내 독재가 남긴 구조를 (경찰력에서) 유지시킨 자만하는 보수연합에서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구조는 복합사회와 병존할 수 없는 과거의 조합주의적 문화의 재생산과 21세기 민주주의를 위한 경찰력의 구축을 가능하게 한다.” (“El estado de derecho en peligro,” *Le Monde diplomatique* edición boliviana, 23/2/2010.)

디에고 세고비아(Diego Segovia)에 따르면,

일반적인 평가에 따르면, 일상적으로 파라과이에서 유통되는 정보와 엔터테인먼트의 90% 이상이 7개의 거대기업집단에 의해 통제된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이 집단들은 다양한 경제분야에서 활동하며, 자신들의 각각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공영역에서 방어하는 것이 이들의 활동방식이다.³¹⁾

파라과이의 경우, 이러한 ‘거짓말을 조작하는 수단들’의 소유자들은 기업과 부동산 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며,³²⁾ 이러한 관련성은 대부분의 농촌지도자들의 부정적인 행동특성 위에서 되풀이된다.

루고 정부가 실행한 몇 안 되는 활동들은 (실행하지 않은 것들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언론매체와 파라과이의 다양한 심급에 존재하는 자본의 대표자들에 의해 체계적으로 비난을 받았다.³³⁾

악성 발암성 림프종

최근에 발견된 루고의 질병은 격동의 파라과이 현대사에 대한 은유로서 등장한다. 진단결과는 2010년 말경에 알려졌는데, 이 시기는 지자체 선거에서 주권의

30) C. Fernández Liria *et al.*, ob.cit.

31) Diego Segovia, “Medios de comunicación en Paraguay: estructura de propiedad y situación actual en la nueva realidad democrática,” *Comunicación mediaticizada, capitalismo informacional y políticas públicas*, Clacso, Buenos Aires, 2009.

32) 예를 들어 세고비아의 글에서는 특히 《ABC Color》의 소유주와 ARP, 통일교, UGP와의 관계가 언급된다.

33) 에르네스토 만델(Ernesto Mandel)의 고찰은 거의 예언적이다. “다국적기업이 등장하면서, 부르주아 계급에게 국민국가는 더 이상 적절한 경제적 도구가 아니었다. 그러나 부르주아 계급은 자기방어를 위해 여전히 국민국가를 필요로 한다. 이들에게 국가는 해외의 경쟁자들로부터 자신들의 개별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 또한 경제적, 사회적 위기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하다. 더불어 폭발적인 사회경제적 위기의 경우에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국민국가가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을 때, 부르주아 계급은 초국가적 기관들로 국민국가를 대체하려 한다.”(“Déficit presupuestario e internacionalización del capitala,” *La Gauche* No.14, 12/8/1992.)

약탈, 강탈, 상실에 기반한 모델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들과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바꾸고자 하는 이들이 서로 대립하던 중요한 시기였다. 이 선거를 통해 해당 지지체를 누가 이끌 것인가 뿐만 아니라 현재의 정치세력 간의 상관관계가 드러난다. 만약 ‘루고주의’가 2008년에 얻은 득표율 40%를 유지한다면, 2011년에 제헌의회의 구성을 시도하는 데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만약 실패한다면, 루고가 주교직을 그만 둔 뒤에 계속해서 사용하고자 하였던 ‘폰초 후루’(poncho juru)³⁴⁾는 약간 더 우파 쪽으로 이동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파노라마는 매우 불분명하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인 이유에서뿐만이 아니라, 생물학적이고 인과적인 이유에서도 그렇다. 즉, 대통령의 직무이행이 불가능해짐으로써 나라를 뒤죽박죽인 국내 정치계에서 가장 평범하고 보수적인 인물들 중 한 명의 손에 맡기게 될 수 있다. 이는 의심할 나위 없이 심각한 혼란상태를 가져올 것이다. 비록 결국 많은 부분이 현재의 추이과정에 대한 국민적 지지기반이 얼마나 튼튼한가에 달려있지만, 신자유주의적 후퇴와 우익경찰국가로의 회귀가 구체적인 위협으로써 등장한다.

(김동환 번역)

34) 과라니어로 문자적으로는 ‘판초의 입’이라는 뜻이며, 루고가 자신의 이데올로기적 입장의 특징인 ‘중도주의’(centrismo)를 묘사하기 위해 매우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다.